

보도시점 2025. 2.28.(금) 09:00 배포 2025. 2.28.(금) 07:00

## 김범석 차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 및 주요인사 면담 결과

- 세계경제의 건전성과 역동성을 높이는 근본적 해법의 모색 필요성 강조
- 국제조세체제 개혁을 위한 다자간 협력과 개도국의 이행능력 지원 촉구
  - 독일·캐나다와 美 관세정책 변화 등에 대응한 협력방안 등 모색
- WB 총재, OECD 사무총장 등과 각 기구 내 한국의 역할확대 방안 등 논의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2.26(수)~27(목), 남아공 케이프타운(Cape Town)에서 개최된 '25년도 제1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하였다.

\* (세션1) 세계경제, (세션2) 국제금융체제, (세션3) 인프라, (세션4) 국제조세  
(세션5) 재무보건, (세션6) 금융부문이슈, (세션7) 지속가능금융 총 7개 세션으로 구성

먼저 세계경제의 핵심 리스크 요인과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한 세션1에서 김 차관은 의장국이 제시한 3가지 의제\*의 논의를 지지하면서 보호무역 확산, 기후변화, 기술전환 등 구조적 도전과제에 대응해 경제의 건전성과 역동성을 높이는 근본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 세계경제의 회복력 강화, 기후 리스크 대응, AI 전환의 영향 및 대응

특히, 한국이 재정건전성 제고, 부동산·금융부문 리스크 관리, 시장 주도의 경제성장 원칙 견지 등을 토대로 작년 12월의 충격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었음을 언급하며, 각국이 신뢰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한 펀더멘털의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경제의 역동성을 강화하기 위한 과감한 구조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은 경제 운용의 틀을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미래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4대 분야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의 근본적인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G20 또한 구조개혁에 대한 유의미한 정책과 성공사례들을 논의해 갈 것을 촉구하였다.

다음으로, 세션2(국제금융체제)에서 김 차관은 회복력 있는 국제금융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MDB 개혁, 부채 취약성 해소, 금융 안정성 확보 등 핵심 과제에 대한 회원국들의 관심을 요청하였다.

특히, 개도국의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채무재조정과 유동성 지원을 넘어 근본적 취약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함을 강조하며, 각 국의 부채관리 역량 강화, 구조개혁 추진을 위한 G20 차원의 정책 지원과 기술 협력의 확대를 촉구하였다.

뒤이어, 김 차관은 국제조세협력에 대한 세션4에서 의장국이 제시한 디지털세 이행, 개도국의 국내재원동원, 조세 불평등에 대한 논의에 전반적으로 지지를 표명하였다.

먼저, 김 차관은 세계경제가 인공지능(AI) 확산으로 더욱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화에 대응하는 국제조세체계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고, 여러 국가 간 조세를 조율하는 국제조세체계의 특성상 G20 차원의 다자간 협력과 합의가 필수적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국내재원동원과 관련하여 국제기구 및 지역 조세기구에서 개도국 수요에 맞춘 기술적 지원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을 제안하면서, 그간 진전되어온 국제조세체계의 제도적 개선은 개도국의 이행 능력이 수반되어야 의미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 금번 재무장관회의는 커뮤니케를 채택하는 대신 의장국 요약(Chair's Summary)을 발표  
(<https://g20.org/g20-media/chairs-summary-1st-finance-ministers-and-central-bank-governors-meeting-cape-town-south-africa-26-27-february-2025/>)

한편, 김 차관은 캐나다, 독일 등 주요국 인사 및 WB(세계은행),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총재 및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사무총장과 양자 면담을 진행하였다.

2.26일(수), 김 차관은 캐나다의 패트릭 헬리(Patrick Halley) 국제·금융 차관보를 만나, 최근 美 관세정책 변화에 대응한 양국간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이차전지 등 핵심분야에서 공급망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금년 한국이 APEC, 캐나다가 G7의 의장국을 수임한 만큼 의제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상호간 적극 공조하고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응한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OECD 마티아스 콜만(Mathias Cormann)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다양한 의제에 대한 OECD의 지원 의사를 확인하고, OECD와 한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또한, 한국 인력 진출 확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하였다.

한편, 김 차관은 WB 아제이 방가(Ajay Banga) 총재, AIIB 진 리쥔(Jin Liqun) 총재와도 면담을 갖고 한국기업의 사업 참여와 한국인 진출 확대를 위해 관심과 협력을 당부하였다.

2.27일(목) 김 차관은 독일의 하이코 톰즈(Heiko Thoms) 재무부 국무차관을 만나, 최근 美 관세정책 변화에 따른 독일과 EU의 대응전략 및 한국과의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또한, 한-독 거시경제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불확실한 글로벌 경제 상황에 대응하여 한국과 독일이 적극 공조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담당 부서	국제금융국 다자금융과	책임자	과 장	이재우 (044-215-4810)
		담당자	사무관	박세웅 (loneilia@korea.kr)
			사무관	하다애 (daae0517@korea.kr)
담당 부서	세제실 신국제조세규범과	책임자	사무관	김하린 (discount@korea.kr)
			과 장	박은영 (044-215-4660)
		담당자	사무관	윤민정 (dmslove@korea.kr)
			사무관	유선정 (usj520@korea.kr)

-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2.26(수)~27(목), 남아공 케이프타운(Cape Town)에서 개최된 '25년도 제1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 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하였다.
- 이번 회의에는 G20 회원국 · 초청국\* 재무장관 · 중앙은행총재 및 국제통화 기금(IMF), 세계은행(WB) 등 주요 국제금융기구 대표가 참석했다.
  - \* 스페인, 나이지리아, 노르웨이, 네덜란드,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이집트 등
  - 또한, 이번 회의는 세계경제(세션1), 국제금융체제(세션2), 인프라(세션3), 국제조세(세션4), 재무보건(세션5), 금융부문이슈(세션6), 지속가능금융(세션7) 등 총 7개 세션으로 진행되었으며, 주요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세션1: 세계경제) 회원국들은 세계경제가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지정학적 긴장, 경제적 분절화와 보호무역 확산, 부채와 이자비용 증가, 지속되는 인플레이션, 기후변화 등 여전히 다양한 하방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 다수 회원국들이 보호무역 확산에 따른 부정적 파급효과에 대해 우려하는 가운데, 규칙에 기반한, 공정하고, 개방적인 다자무역체제의 복원과 회원국간 연대 강화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 부채와 이자비용의 증가는 회원국들의 주요 관심사였으며,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한 재정 개혁과 국내자원 동원, 부채 관리 등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또한, 회원국들은 잠재 성장률이 역사적 수준을 하회하는 가운데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개혁의 중요성 강조하는 한편, 인플레이션을 목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촉구하였다.
  - 한편, 다수 회원국들은 금년 남아공이 제안한 글로벌 경제의 회복력 강화, 기후리스크 대응, AI 전환 대응 등이 주목해야 할 핵심 도전과제라는 데 공감을 표했으며, 세계 경제의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잡힌, 포용적 성장을 위해 각 이슈에서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세션2: 국제금융체제) 회원국들은 국제금융체제의 지속적 진화를 위해 MDB 개혁, 부채 취약성 해결, GFSN 강화, 금융 안정성 등 위한 조치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현재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해결하기 위해 다자간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MDB 개혁과 관련하여, 회원국들은 MDB 로드맵 이행\*을 위한 Monitoring and Reporting Framework 마련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으며, 이에 CAF\*\* 이행 점검 보고서를 첨부하는 방안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였다. 또한, 지속가능개발에 필요한 자원 조달을 위해 국가 주도 플랫폼을 활용한 민간 자본 동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글로벌 위기 등에 대응한 MDB 역할 강화를 위한 포괄적 개혁 방안으로, ①Better (시스템 개선), ②Bigger(자금조달 강화), ③More effective(개발 영향력 확대) 3가지 필라로 구성

\*\* 자본적정성체계(Capacity Adequacy Framework): 개발자원 수요에 대응하여 기존자원 효율적 활용방안 모색(예: 내부리스크 평가 개선, 보증 등 자원조달 혁신, 요구불자본 반영 등)

- 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Common Framework\*의 개선 및 신속한 부채 조정 절차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일부 회원국들은 투명성 강화를 위한 데이터 공유 확대를 촉구하였다. 또한, IMF-WB의 3 pillar 접근법\*\*을 토대로 부채가 지속가능하지만 유동성 위기에 처한 국가들을 지원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 Common Framework for Debt Treatment:(‘20.11월~) 그간 中 등 非파리클럽 회원국 채권증가 → G20內 파리+非파리클럽국이 모두 참여하는 채무구제 플랫폼 마련

\*\* (Pillar 1) 구조개혁 및 국내자원동원 (Pillar 2) 국제금융기구의 금융 지원 (Pillar 3) 부채 부담 경감

- GFSN 및 금융 안정성 관련, 회원국들은 IMF 거버넌스 개혁 및 자원 확대를 강조하며 17차 GRQ 논의 추진을 촉구하였고, 비은행 금융기관(NBFI)이 유발할 수 있는 자본 흐름 변동이 신흥개도국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였다. 아울러, 금융시장 투명성 제고 및 데이터 격차 해소를 위한 다자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금융안정위원회(FSB) 관련 연구와 정책 권고 사항의 이행을 촉구하였다.

③ (세션3: 인프라) 회원국들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인프라 투자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인프라 투자 규모와 실제 투자와의 격차는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으며, 격차 해소를 위해 민간 자본 동원이 필수적이라는 데 동의하였다.

- 회원국들은 민간 자본 동원을 위해 정보 접근성 개선 및 인프라 종합 계획(Pipeline) 구축을 통해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혼합금융\*의 활용을 통해 위험을 분담하며, 인프라 투자를 하나의 자산군으로 확립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 공공자본의 위험 분담을 통해 민간자본의 유입을 촉진하는 금융기법

- 또한, 지역 발전을 위한 국경 간 인프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경 간 인프라 구축의 장애요인 해소를 위해 각국의 정책사례를 공유하며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④ (세션4: 국제조세) 대다수 회원국들은 국제조세 논의 지속 필요성을 지지하였으며, 이에 대한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하여 G20이 지속 협력해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 다수 회원국들은 필라1 협상 타결을 포함하여 디지털세 개혁(Two-Pillar solution)의 지속적 논의 및 신속한 이행을 지지한 가운데, 일부 국가는 각국 주권의 존중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남아공 의장단은 필라2 이행 관련, 개도국에 대한 기술 지원 제공을 요청하였다.
- 개도국들은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국내재원동원과 국제조세개혁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회원국들은 개도국에 대한 기술지원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국제기구로 하여금 역량 강화 체계의 진전에 대해 보고할 것을 촉구하였다.
- 또한, 다수 회원국들은 조세 정책이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에 동의한 가운데, 정보 교환이 투명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부동산 정보 교환에 대해서는 예측 가능한 관련 정보를 자발적으로 교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UN 국제조세협력 기본협약 논의의 경우, 기존 포럼과의 불필요한 중복을 피하면서 폭넓은 합의를 목표로 지속 참여해 나가기로 하였다.

⑤ (세션5: 재무보건) 회원국들은 팬데믹 예방·대비·대응을 위한 재무-보건 간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팬데믹으로 인한 보건·사회·경제 부문의 위험 및 취약성을 분석하고, 제도적 역량을 강화하며, 향후 재무-보건 간 협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 또한, 회원국들은 개발도상국의 보건재정 확충을 통한 보편적 의료보장, 공중보건기관 설립, 초기 대응자금의 조달 등을 주요 과제로 언급하였으며, 「팬데믹 펀드」와 같은 국제 자금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⑥ (세션6: 금융부문의이슈) 회원국들은 효율적이고 투명하고 안전한 글로벌 금융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에 공감대를 모았으며, 이를 위한 주요 과제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 회원국들은 국제결제은행(BIS)의 결제 및 시장 인프라 위원회(CPMI)의 작업을 바탕으로 국경 간 결제 시스템의 신뢰성과 무결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바젤 III 등 국제 규범에 따른 금융개혁 이행 및 후속 모니터링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또한, 비은행 금융기관(NBFI) 부문의 레버리지 위험과 데이터 투명성 문제 해결을 위한 체계적 감독 강화를 요구하였으며, FSB 권고안의 완성을 통한 금융 시스템 전반의 안정성 확보 방안을 논의하였다.
- 한편, 회원국들은 가상자산과 인공지능(AI)의 도입으로 인해 발생한 금융안정성 리스크와 사이버 보안 문제에 대한 신속한 대응방안 마련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았다.

⑦ (세션7: 지속가능금융) 대다수 회원국들은 그간 기후변화 대응재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후목표 달성에 필요한 규모에 미달하며, 민간 자본 동원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 이를 위해 다자개발은행(MDB), 국가개발은행(NDB), 민간 등 다양한 참여자간 협조융자(Co-Financing) 확대가 필요하며, 다양한 절차와 융자조건 등을 조율하고 원활히 하기 위해 글로벌 지속가능금융체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 또한, 민간 부문의 탄소시장 참여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기후 금융을 확대할 수 있도록, 파리협정 등 국제적 합의에 기반한 탄소 데이터의 국제적 표준화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경주하기로 하였다.
- 한편, 그동안 기후금융이 감축(mitigation)을 위한 재원마련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기후 재해 대응 등을 위한 적응(adaptation) 금융도 확대되어야 함에 공감을 표하고, 각국의 성공적 경험을 공유하며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